특별기고 —중앙도서관 CD-ROM을 알아본다

정보화시대의 꽃 CD-ROM

생명·사회과학, 화학등 정보 다양 초보자도 정보검색 가능

Ⅰ. 시작하며

컴퓨터가 발명된지 오랜 시일이 지났지만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문자이외에 그림, 애니메이션, 음성 등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자, 그림, 음성, 동화상 등과 같은 여러종류의 정보매체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보전달 수단으로 이용하고자하는 멀티미디어는 우리들에게 더이상 낯설지 않은 친숙한 용어로 자리잡고 있으며, 더불어 CD-ROM도 현재 멀티미디어의 매체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CD-ROM자료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기계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독데이타를 얻기 위한 소스데이타, ②책자형 참고도서의 대체, ③온라인 데이타베이스의 대체

본 도서관에서도 1989년 상기 ①항에 해당하는 문헌화일을 도입, 서양서의 정리에 활용하기 시작한 이래 1991년부터 상기 ②, ③항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도입하여 현재 이용중에 있다.

Ⅱ. 개요

CD-ROM이란 광디스크의 일종으로 본래 오디오용으로 개발된 CD-DA에 문자나 화상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ROM이란 용어에서도 알 후 있듯이 제작된 CD에 1회에 한해 추기가 가능한 WORM이나 기록 독해는 물론, 제작된 내용을 자유롭게 소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이러저 블 광디스크와는 달리 독해는 가능하지만 추가 기입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재생전용 매체이다.

1983년 CD-ROM이 처음으로 일반에게 소개되었을 당시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 제품간의 호환성이 없어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1987년 CD-ROM의 내용을 기록하는 포맷의 표준안이 만들어지고, 이어 이를 일부 개선한 ISO 9660포맷이 국제표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CD-ROM의 파일 및 볼륨의 표준을 제시하여 제작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이용자 운용체계도 MS-DOS, UNIX, VMS, Mac OS등에 의해 작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Ⅲ. 본관 소장CD-ROM의 개요

가. 학위논문(Dissertation Abstracts on Disk)

1861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북미와 유럽의 1천여 대학에서 매학기마다 수여되는 석·박사 학위논문의 초록과 서지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며 연간 2회 새로운 논문자료가 추가되고 있다. 각 건은 공히 저자, 논문명, 대학명, 지도교수, 학위수여년도, 주제명, 초록을 수록하고 있다. 단 초록의 경우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1980년부터,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1988년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도교수의 경우도 1988년 이후의 자료부터 수록되어 있다. 초록은 박사학위의 경우 3백단어, 석사학위의 경우는 1백50단어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불용어(관사, 전치사, 부사, 형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검색이 가능하다.

상기 자료는 이용자들이 특정분야의 연구 경향을 확인, 최신 연구방법론에의 접근, 선행 연구된 학문이나 기술의 발전과정을 추적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자료이며, 특히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책자형으로 출판하고 있는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 총목록"과 연계하여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또한 본 CD-ROM을 통하여 검색한 대부분의 자료는 이용자 부담하에 UMI측에 원문제공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생명과학(Biological Abstract on CD)

매년 1백여개국 9천여 학술지에서 30만건 이상의 생명과학분야 기사들에 대한 서지정보가 추가되고 있다. 이것 이외에도 BA/RRM on CD(본관 미소장)가 있는데, BA on CD가 주로 잡지에 실린 기사들을 색인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BA/RRM on CD는 보고서, 회의자료, 평론들을 그 색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도서관에서는 1992년부터 BA on CD를 구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 1991년까지의 자료는 책자형태로 소장하고 있다. 생명과학분야의 정보검색을 위해서는, 여러 매체 및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본CD-ROM의 검색과 병행하여 상기한 Dissertation Abstract on Disk나 Medline on CD (현 의료원 소장)를 이용하는 것도 작은 비용으로 정보검색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본 CD를 통하여 검색된 기사들의 소스자료가 국내에 입수되고 있는지의 유무는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출판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색인된 간 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16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는 소스정보, 저자정보, 주제정보의 세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스정보 영역에 해당되는 필드들은 기사가 실린 자료명, 출판년, 본문 및 요약문에 사용된 언어 등이며, 저자정보 영역에 해당되는 필드들은 저자명, 저자 및 리폰리트들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정보영역에 해당되는 필드들은 기사명, 초록, Descriptor, Concept, Super Taxa등이다.

다. 화학분야(Chmistry Citation Index)

ISI(In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nc.)에서 제공하고 있는 "Specialty Citation Indexes"중의 하나로 매년 3백여종의 화학분야학술지와 7천여종의 화학분야와 관련된 자료들로부터 매년 8만건 이상의 기사들이 색인되고 있다. 화학 전분야를 색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992년 10월부터 BBCI (Biochemistry and BioPhysics Citation Index)를 CCI와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화학분야의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색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필드들은 상기한 두가지의 CD와 크게 다른점은 없으며, 본 CD의 특징은 검색시 해당 논문의 관련자료와 인용문헌들에 대한 서지사항을 함께 검색할 수 있다는 점으로 생각된다. 본 도서관은 1991년 자료부터 CCI를 구입·소장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유수한 화학분야의 색인지인 Chemical Abstracts도 1940년도분부터 책자형으로 소장하고 있다.

라. 사회과학(Social Science Index)

영문으로 출판되고 있는 약 3백50여종의 사회과학분야(주로 사회, 정치, 경제, 심리) 잡지에 실린 기사들에 대한 간략한 서지정보를 제공, 색인 대상분야가 사회과학이란 분야에 걸맞지 않게 한정적이란 단점은 있지만, 월간으로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학분야(특히 시사와 관련된)의 자료 검색을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색인된 각 자료들은 상기한 3종의 CD-ROM과는 달리 저자, 기사명, 소스, 주제어의 네가지 필드로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검색시 약간의 제한점이 발생한다. 즉 상기 3종의 CD-ROM에서는 검색시 대부분의 키워드들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본 CD-ROM은 키워드의 부족으로 인해 키워드 검색시 별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본 도서관은 1983년 자료부터 소장하고 있으며, 소스자료의 국내 입수여부는 한국학술정보센터에서 출판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인문·사회과학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 기타 자료

현재 본 도서관은 Multimedia Encyclopedia, Reference Library, World Atlas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구비하여 이용중에 있다. 현재 이러한 자료들은 국내에서도 다수 발행되기 시작하고 있을 정도로 그 범용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종래 책자형 자료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한계들을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점과 공간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당 지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예정이다.

Ⅳ. 자료 검색의 잇점

CD-ROM자료의 검색은 근본적으로 온라인 데이타베이스의 검색과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온라인 데이타베이스의 검색을 수행해본 사람이라면 도움말 명령어를 사용, 쉽게 검색방법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보자의 경우에도 모든 시스템이 풀 다운 메뉴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방법을 숙지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Ⅴ. 글을 마치며

오늘날 우리들은 정보화사회에서 살고 있다. 정보화 사회란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정보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행동의 하나는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그의 활용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뒷바침하는 것이 새로운 통신매체, 즉 뉴미디어이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본 대학도서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흐름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여러가지 면에서 흡족하지 못하지만 교내 각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을 때 CD-ROM 시스템을 포함하여 현재 본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계획이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본 글을 마친다.

박 동 은
〈중앙도서관·참고열람과〉

특집—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보고

거듭 나야 할 백만의 구심체

한총련, 이제는 대학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총련, 이제는 대학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여론이 확대돼고 있다. 전대협 6년 역사를 거쳐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지 2년째를 맞고 있는 한총련은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의 강화를 시도됐지만, 실제로 사업내용이나 조직운영방식에 있어 변화된 것은 없다는 지적과 학생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학생대중조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일(금)~3일(일) 부산대에서 개최된 한총련 대의원회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지 못한 한총련의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대의원대회 중 한총련의 개혁을 요구하는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를 비롯한 26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단은 한총련개혁모임 '진보를 향한 연대'를 통해 한총련의 조직운영과 사업집행에 새로운 변화, 혁신을 촉구했다. 이 지면에서는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통해 드러난 한총련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4월3일 새벽 한총련대의원대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총학생회 연합조직 한총련

한총련은 학생회라는 대중조직의 연합체이다. 대중조직은 대중의 이해와 요구의 실현 안에서만 그 존재의 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체로서의 인정이 가능하다. 한총련이 총학생회 연합조직으로서 자기역할에 충실하려면 각급학생회 단위의 요구와 학생회가 받아들이는 학우대중의 요구 실현이 사업의 근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생대중의 요구는 다변화되어 갔으며, 정치적 요구외에도 생활적, 학문적 요구가 끊임없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생회는 대중조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는데, 한총련의 투쟁일변도의 사업형태는 학생회와 학우대중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정한 사상속에 일관된 사업방식은 총학생회 조직의 총괄단위로서의 한총련 위상을 실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생회연합체의 기본적 과제는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바탕한 사업실천이며 일반학우—총학생회—지역총련—한총련의 연결고리속에 한총련 사업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 역행하는 학생운동 주도

지난 87년, 전대협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생운동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성되었다. 80년대 학생회는 학생운동의 대중지지로써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지금의 학생운동의 방향은 변화되고 있다.

'문민시대'라는 변화 속에서, 국민대중적 지지와 기반을 갖춘 새로운 운동전형을 창출해야 할 한총련은 90년대 이래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종파표에 일관해 있으며, 관성화된 가두투쟁과 구호 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총련은 94년 총노선에서 '반미투쟁'과 '김정권바도투쟁'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지금 한국사회 운동은 반민주의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운동의 전형, 즉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총련은 정치투쟁에 집중된 학생운동이 아니라, 대학사회 전 영역에 걸친 '진보적', '전취적'운동관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앙집중식 조직운영에서 공개와 민주화의 실천을

이번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총노선 논의중 '한총련 개혁'을 지향하는 일부 대의원들이 잠단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총련 총노선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시안은 대표자를 사업의 구심체로 새우는 '지도이념'에 관한 것이었는데, 퇴장한 대의원중 한명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장 강병원군은 "다양하고 진보적인 학우들의 견해를 '지도이념'으로 묶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총련은 특정 정치조직이 아니라 대중조직연합체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총련 총노선의 지도이념은 사상적 견해를 떠나서 조직운영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총련은 '의장중심으로 한 백만학도의 사상통일'을 절대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학인의 진정한 진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의 변역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한총련 중앙간부의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업내용과 비림직적인 대의원회는 '중앙집중식' 운영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직운영의 공개화, 민주화에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가 있는 의장후보 선출의 문제는 올해에도 제기되었다. 한총련의장은 용립되는 것이 아니라,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하며, 그속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의사개진의 통로를 닦아야 한다.

학원대개혁의 주체는 한총련

94년 한총련이 당면한 핵심적 투쟁목표는 교육재정확보투쟁과 수입개방 반대투쟁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총련은 실제적으로 '반미투쟁을 본격화하고 김영삼 타도 투쟁을 현실화하자'는 고민만을 일상화시키고 있다. 백만학도가 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은 구조적인 문제들로 얽혀져 있다. 이 문제해결의 과제는 대학은 모두의 몫이며 대학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핵심주체는 학생 대중조직인 한총련이어야 한다. 한총련은 자신의 활동내용을 대학에서 찾아야하며 교육개혁과 학원개혁은 한총련 단위에서 이루어야 할 최대의 사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역사에 있어 이전 전대협이 차지한 위치는 상당히 크다. 한총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이전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더 나은 조직으로의 발전을 향한는 것이고 이러한 시행착오와 자기반성 속에서 한총련은 백만학도의 든든한 구심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한총련의 개혁은 미래지향적, 건설적이어야 한다. 사회의 변화, 학우정서의 변화에 다각적인 실천으로 접근하는 대중조직으로서의 강화는 학우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의사개진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남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 취재분과 공동기자단〉

한화그룹과 함께 21세기를 준비하십시오!

Partner, not Employee!

상하관계의 직장이 아니라 수평관계의 일터 —
자유롭게 꿈과 이상을 실현할 보람의 일터 —
21세기의 주역으로 세계를 개척해 나갈 일터 —
한화그룹이 젊고 유능한 동반자를 찾습니다.

신입사원 모집요강

1. 모집분야

모 집 분 야	인 원
상경, 법률, 기타-영어, 일어, 중국어, 관광, 기계, 전산, 전기, 화공, 건축, 응용미술, 사원	160명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모집해당학과 전공자로서 학사·석사 학위 기취득자 또는 1994년 졸업 예정자
나. 1994년 전역예정 또는 기 전역 ROTC 및 독·해·공군 학사장교
다.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 및 대학졸업자의 경우 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무궁화소정양식) ····· 면접용, 신산용, OMR용 각 1통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석사학위 이상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 1통
다. 자격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1통
라.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에 한함) ····· 1통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기간 : '94. 4. 12(화) ~ 4. 19(토)
* 방 법 (9 : 30 ~ 17 : 00 * 토요일(9 : 30 ~ 12 : 00)(일요일 제외)
나. 접수 : 그룹공채서 — 한화 : 서울시중구 장교동 1번지 한양빌딩 20층 대강당*
* 그룹대표전화 ☎ 729-1083, 729-1500

■ 지방교부처

교 부 처	전 화 번 호	주 소
제일증권 대전지점	(051)465-7533	부산시 중구 초량1동 1142-1
제일증권 대구지점	(053)423-0311	대구시 중구 삼덕로2가 149-1120
(주) 한화 광주지점	(062)942-8011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1003-297
제일증권 대전지점	(042)284-1800	대전시 동구 문화동 1-19

6. 기 타
가. 입사지원서는 본인이 직접 생활하게 작성하되 지참 기재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입사 등 취소함
나. 주민등록등본 경우에만 접수 5시이전 지참하여 제출에 한함
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 우대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룹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별 모집분야

구 분	인문계 상경	인문계 법률	인문계 기타	이공계 화공	이공계 기계	이공계 전자	이공계 전산	이공계 건축	응용미술	사원	비 고
(주) 한 화										○	기타 - 영어·일어·독어·불어
전 자 계 열 사 (주)					○	○					
한 양 화 학 (주)				○							
유 니 온 프 리 마 (주)											
한양바스프우레탄(주)											기타 - 인기
한 국 종 합 기 계 (주)					○						기타 - 전원 공장
한국자동차부품(주)											
한 국 정 밀 (주)					○						
금 융 계 열 사 (주)	○										기타 - 영어, 일어, 독어, 불어
제 일 증 권 (주)	○										기타 - 일어, 중국어
(주)제일경제연구소	○										석사제외 기타
상 호 투 자 금 융 (주)	○										
태 창 개 발 (주)	○										기타 - 영어
한 국 국 토 개 발 (주)	○										기타 - 공학
동 양 전 자 통 신 (주)	○				○	○					전자 · 전산 - 보직자 기능
한화그룹(공보실만명)											서울 · 충청 근무

■ 한화그룹 사옥 위치도

한화그룹 인력관리위원회

한화그룹

■화학·(주)한화·한양화학(주)·한양소재(주)·한양버스프우레탄(주)·유니온프리마(주) ■에너지·경인에너지(주) ■기계·한국종합기계(주)·한국정밀(주)·한국자동차부품(주) ■무역·골든벨상사(주) ■전자·동양전자통신(주) ■금융·제일증권(주)·(주)제일경제연구소·제일투자자문(주)·삼화투자금융(주) ■관광/유통·대림개발(주)(사)몰프라자호텔·(주)한양유통·서울칠성리역사(주) ■레저·한국국토개발(주) ■사회복지·천안복일하원·(주)한화이글스 ■언론·(주)경향신문사 ■R & D·그룹종합연구소